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RARE OBJECTS
가제 : 희귀품
저자 : Kathleen Tessaro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6년 5월 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영화화

*** 케이티 홈즈 연출로 영화 제작 옵션**
*** "독자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갈 줄 아는 작가. 장소와 감정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House of Thieves』의 작가 찰스 벨푸어**
*** "1930년대 보스턴의 패션과 음악, 문화를 조합하여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그린 작가의 시각이 인상적인 소설" - 「북리스트」**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1930년대. 대공황이 할퀴고 간 자리에 한 젊은 여성이 철저한 위장술로 특별한 상점에 마침내 직원으로 채용된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 고고학자가 운영하는 골동품 전시장 겸 판매장에서 가장 희귀하고 멋진 물건만 찾는 최상류층들만 상대하게 되었다. 미국 토박이인 것처럼 외모와 행동을 연기하며 새로 택한 신분을 그럭저럭 유지한다. 그러나 주인의 심부름으로 귀한 상품을 배달하러 간 메이는 그곳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과 마주친다.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함께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 환자로 살아야 했던 시간에 같이 입원해 있었던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사는 형편도, 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르지만 시대가 암묵적으로 정한 여성의 역할에 거센 반발심을 느낀다는 강력한 공통점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과거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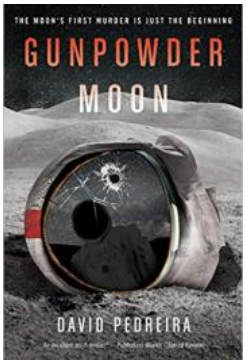
그러나 철저히 감춰온 무거운 비밀들이 우정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원래 메이가 꿈꾼 미래는 번듯한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는 것이었다. 아일랜드에서 겨우 열일곱 살에 미국에 홀로 건너와서야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허드렛일을 하며 메이를 키운 엄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다. 아일랜드에서 양가 부모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메이의 엄마는 남편과 기회의 땅이라 불리던 미국에 건너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지만 메이의 아빠는 지독한 독감에

걸려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다시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대신, 어린 메이 엄마는 혼자서 남편과 계획한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미국 행 배에 몸을 실었다. 한 때 유대인 마을로 유명했던 보스턴 노스엔드를 당시 줄줄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거의 다 차지할 무렵 그곳에 정착한 메이의 엄마는 따뜻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메이를 낳고 봉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건물 청소부로 부지런히 일했다. 그렇게 힘들여 키운 딸이 비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엄마는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메이가 맞닥뜨린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비서 구한다는 광고가 나오기만 하면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 면접 한 번 보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고, 겨우 눈도장을 찍는다 해도 걸출한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뉴욕에서 1년 가까이 불합격 통보만 받느라 지친 메이는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말았다. 독한 밀주와 흥겨운 음악, 춤과 화려한 파티가 날마다 이어지는 세계, 직업 댄서가 된 것이다.

평범한 취업 준비생인 것처럼 살면서 실제로는 밤마다 처음 보는 남자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남몰래 들이키는 독한 술에 취한 채 매일 위태롭게 살던 메이는 결국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른다. 당혹스러운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사회가 엄격히 정한 얌전하고 조신한 여성상에 메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친구, 다이애나 덕분이었다. 퇴원 후 엄마 곁으로 돌아온 메이는 이 어두운 과거를 모두 덮기 위해 빨간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출신도 속이고 골동품점에 취직했다. 직업 소개소에 등록한 후에도 매번 낙방하는 딸을 돕기 위해 엄마까지 친척인 척 연기를 해주며 겨우 잡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인데, 메이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기를 함께 한 다이애나가 나타난 것이다. 거짓 신분이 드러날까 초조해하던 메이는 다이애나 역시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면서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이 우정은 오래가는 우정이 아니었다. 다이애나가 살고 있는 최상류층의 세계에 초대 받은 메이는 어디에서든 관심을 얻어야 하고 마음대로 해야 직성에 풀리는 다이애나가 부담스러우면서도 늘 손님들을 통해 엿보기만 하던 그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낀다. 급기야 메이가 나이가 훨씬 많은 다이애나의 오빠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자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모습 뒤에 감춰진 다이애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메이는 큰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힘들게 덮어둔 과거가 다이애나로 인해 드러날 위기에 처한다. 도덕적 기준이 모호한 세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슬린 타사로(Kathleen Tessaro)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연극을 공부한 뒤 런던으로 이민을 갔다. 영화, TV 프로그램, 연극, 오페라 무대에서 10년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후 글을 쓰기 시작했고 『Elegance, Innocence』, 『The Flirt』, 『The Debutante』, 『The Perfume Collector』 등 발표한 소설 모두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제목 : GUNPOWDER MOON
가제 : 달의 살인사건
저자 : David Pedreira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8년 2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SF스릴러소설

*** 아마존 6월 베스트 도서, 반스앤노블 2018년 주목할 만한 SF/판타지 데뷔작 25권 선정,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올 봄/여름 우수 데뷔작**

*** "독특한 소재, 분열된 충성심을 흥미롭게 다루며 잘 짜인 줄거리가 SF와 미스터리 장르를 교차하는 데뷔 소설. 멀리 떨어진 드넓은 달에서 드러난 인간의 정치성, 경제성을 명료하게 그린 과학 스릴러" - 「라이브러리 저널」**

2072년, 더 이상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니며, 남은 대안은 달에서 풍족한 자원을 캐다가 지구에 심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달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탐욕은 폭력적인 대립으로 치닫는다.

온난화로 치솟은 기온과 사막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달에서 얻을 수 있는 헬륨3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군 출신으로 지구에서 숱한 전쟁터에 휩쓸려 다니던 카덴은 전 세계가 달려든 달 채굴 작업에 자원했다. 그가 맡은 구역은 달 표면 중에서도 '맑음의 바다'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각종 장비와 함께 곳곳에 뚫린 분화구로 내려가 연료로 쓰일 헬륨3를 채취하는 일의 작업반장을 맡았다.

그의 소망은 소박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땀 흘리며 몰두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상 상태가 변하고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달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팀원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카덴의 기준은 달 탐사와 자원 채굴에 뛰어든 다른 나라들도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믿음을 무참히 깨는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카덴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채굴기가 폭발한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 사고로 카덴은 콜 대원이 즉사하고 말았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카덴은 찜찜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다. 오래 전이지만 전쟁의 기억이 선명한 그의 눈에는 콜의 죽음은 결코 운 나쁜 사고가 아니었다. 파편에서 발견된 흔적으로 볼 때, 채굴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출입문 바깥에 누가 폭탄을 일부러 설치해두었고 안에 있던 사람이 손으로 그 문을 밀자마자 터지도록 해둔 것이 분명했다. 가끔 미소유성체가 우주 공간에서 날아들어 폭발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카덴이 봤을 때 유성체가 충돌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카덴은 달에서 자원 채굴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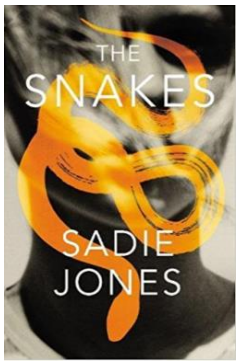
된 초기에 달 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탓에 온갖 사고가 터졌고 국적을 가리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달의 먼지, 월진 때문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암석이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장비들을 망가뜨려 즉사한 사례도 많았다. 극도의 열이나 추위로 말 그대로 타 죽거나 얼어 죽은 비극적인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달에서 누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콜의 죽음은 달에서 벌어진 최초의 살인사건인 것이다.

서로 배려해가면서 필요한 자원만 획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카덴은 지구에서 미국 정부가 벌인 수상한 음모를 포착한다. 달 개발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과 알게 모르게 대립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양국의 기 싸움이 달 표면 다른 구역에서 이미 겉으로 드러나 다툼이 벌어진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로의 작업을 방해하고 필요한 장비를 망가뜨리는 수준에서 그쳤던 신경전이 어쩌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렀을까?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지겹도록 목격하고 그 고통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카덴은 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으리라 다짐한다. 카덴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팀원들은 다른 나라가 관리하는 채굴 지역을 독점하기 위해 미국이 세운 공격 작전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만,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밝거나 바로 앞에 있는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어둠이 번갈아 드리우는 달 표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를 앞세운 세력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밥줄이 끊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더 큰 일반 광부들,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 그리고 멀리 내다 앉아 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정치인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틈에서 카덴은 콜을 죽인 범인을 찾는 한편, 첫 탐사대를 보낼 때의 태도와 달리 사람의 목숨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이 더 중요한 자들의 치밀한 계략을 파헤친다.

지구와 인간이 맞이한 최악의 상황과 얼마 남지 않은 생존의 가능성을 여전히 전쟁으로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평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희생 정신을 탄탄한 줄거리와 눈 앞에 장면이 펼쳐질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페드레이라(David Pedreira)는 탐파 트리뷴, 세인트 피츠버그 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AP 통신, 전문 저널리스트협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SNAKES
가제 : 뱀
저자 : Sadie Jones
출판사: Chatto & Windus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핀란드 판권 계약 체결**
*** 23개국에 번역되고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코스타 데뷔 소설 상 수상작 『The Outcast』의 작가가 처음으로 쓴 현대물 - 돈이 불러오는 파괴와 비극**

런던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베아트리체와 원래 화가를 꿈꿨지만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남편 댄, 두 젊은 부부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벌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베아트리체와 달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돈까지 얼마 못 벌고 아내에게 기대어 사는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댄이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시작된 여행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조금씩 모은 돈을 여행 비용에 보태기로 하고 프랑스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서 머리를 식히기로 한 부부의 계획은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야기는 문득, 조금은 충동적으로 두 사람이 여행길에 나서게 된 시점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낯선 나라 낯선 시골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는 시점까지 천천히 따라가면서 두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풀어낸다.

돈 때문에 무작정 과도를 집어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어린 아기 엄마를 베아트리체가 목격하는 소설의 첫 장면이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무엇까지도 할 수 있는지 그 극단적인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복선이었음을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새삼 느끼게 되는 소설이다.

댄과의 만남은 뚜렷한 목적 없이 친구를 따라간 미술관 파티장에서 이루어졌다. 대학 졸업 후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작품을 처음 전시하게 된 댄은 미술관 벽면에 죽 걸려 있는 재능 넘치는 남들의 작품들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함께 밤을 보내기 시작한 미술 과외 선생님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전시회 당일에야 함께 서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서야 알게 돼서 얼굴이 그야말로 흙빛이었다. 하지만 조금 늦게 미술관에 들어선 베아트리체에게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댄의 얼굴만 보일 정도로 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댄의 그림을 응시하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 받게 된 두 사람은 급속히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1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베아트리체는 이상하리만치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결혼 직전에야 그녀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댄은 짐작했던 상황을 맞이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 입은 베아트리체의 부모님은 돈 안 되는 그림 대신 부동산 중개업을 막 시작한, 게다가 '정통' 영국인도 아니고 유럽 다른 나라의 피가 섞인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베아트리체가 부모님에게 드러내는 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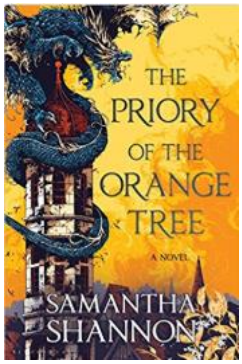
감이었다. 자세한 속사정은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동안 부모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베아트리체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고, 하나 뿐인 오빠 알렉스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베아트리체는 부모님과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댄은 아내가 오빠 알렉스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아트리체의 부모님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 집과 별장, 상업 시설을 수십 채씩 보유한 재벌이었고 알렉스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댄은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걸로도 모자라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호기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베아트리체는 그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으려 했다. 댄은 그 이유를 멀쩡하던 알렉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허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침내 알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알렉스는 혼자 스위스에 출장을 떠났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부부에게 곤란한 일이 생긴다. 런던을 떠나오면서 한국 유학생에게 집을 임대하고 왔는데, 댄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하기로 약속했던 그 학생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당장 현금이 궁해진 두 사람은 알렉스의 사고 조사 때문에 프랑스에 와 있던 베아트리체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다. 사이가 영 서먹한 아내 대신 그 힘든 이야기를 꺼낸 댄은 장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죽은 알렉스가 운영하던 호텔에 현금 다발이 있으니 가져다 쓰라'는 제안이었다.

왜 호텔에 현금 다발이 있을까? 오빠가 갑자기 출장을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 영 이상했던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선다. 그리고 부자가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몰래 들여오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렉스는 스위스 어느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오러 출장을 간 것이었고, 그가 죽은 후 현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거액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자가 작정하고 사고를 벌인 뒤 달아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왜 알렉스는 바보처럼 이런 불법적인 일을 도왔을까? 알렉스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남도 아닌 엄마에게, 성적 폭행을 당해 왔다는, 도저히 믿기 힘들지만 심리치료사로서 평소 그런 일의 피해자들을 자주 접해왔기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베아트리체는 돈에 미쳐서 아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운반하게 시킨 아버지나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핑계로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엄마에게 거센 증오심을 느낀다. 댄은 아내가 돈이라면 환장하는 부끄러운 가족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를 도와 이 추잡한 일이 마무리될 있도록 도우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탐욕을 도와주며 콩고물을 받아 먹은 또 다른 자들이 두 사람의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새디 존스(Sadie Jones)는 BBC 드라마로도 제작된 데뷔 소설 『The Outcast』로 코스타 데뷔 소설 상을 수상하고 오렌지 상 결선에 올랐다. 두 번째 소설 『Small Wars』도 오렌지 상 후보작이다. 그 밖에도 『The Uninvited Guests』, 『Fallout』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PRIORY OF THE ORANGE TREE
가제 : 오렌지 나무
저자 : Samantha Shanno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2월 26일
분량 : 896 페이지
장르 : 판타지소설

*** 전 세계 50만 부 이상 판매된 「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The Bone Season』 시리즈의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판타지 소설**

한 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과 분열로 서로 등을 지자 섬나라 세이키는 세상과의 연결되는 접점을 모두 제거한다. 섬 왼쪽으로 이어진 라커스트린과 우측으로 이어진 멘티시 외에는 망망대해뿐, 세이키는 철저히 세상과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 이곳의 왕궁인 하우스 오브 베레스넷은 수천 년 동안 이니스 인에 속하는 여왕들이 대를 이어 지켜왔다. 반드시 딸을 나아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사브란 9세는 딸은커녕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거대한 왕궁과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나 먼 옛날 쫓겨난 고대의 적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한 번 세이키를 집어 삼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된 사브란 여왕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닫기 전에 대를 이을 딸을 나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위협을 느꼈을 때 여왕을 노리는 암살범은 코 앞까지 와 있다.

2중, 3중으로 왕궁을 지키는 최정예 병사들이 무색할 만큼 기막힌 솜씨로 여왕의 침실 문턱까지 넘은 암살범의 손에 사브란 여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여왕의 목숨을 살려낸다. 바로 왕궁의 시녀 이드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여왕과 왕족들 시중을 들고 보필하는 이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녀들 사이에선 자신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나 하는 이드가 이교도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증거를 내놓진 못했다. 이드는 비밀리에 오랜 마법의 전통을 지켜온 단체, '프라이오레스'에서 사브란 여왕을 지키라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보낸 마법사였다. 굳이 여왕의 시녀가 된 것도, 밤이 되면 침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시녀 몇몇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특별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이드는 성격에 전혀 안 맞는 시녀 생활을 오랜 세월 감내했다. 오렌지 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사이덴'을 감추고 여왕의 먼 발치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 왔다. 사이덴 마법이 축복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그 능력을 키워온 이드로썬 마법사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춰야 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한 일이었다. 여왕을 비롯한 이니스 인들은 유독 마법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다. 수천 년 세월을 이겨내고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해주는 이니스의 전설 중에는 '숲의 여인'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입에서 입으로 오래 전해지는 동안 이름은 사라졌지만, 이 숲의 여인은 이니스 인들에게 끔

찍한 악의를 갖고 있으며 마주치면 주문을 외워 그 자리에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릴 때부터 이런 내용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마법사와 비슷한 존재만 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불과 나무, 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이덴 마술이 아니었다면 한밤 중에 여왕의 침소까지 쳐들어온 뻔뻔한 강도를 여왕 혼자 절대 잡지 못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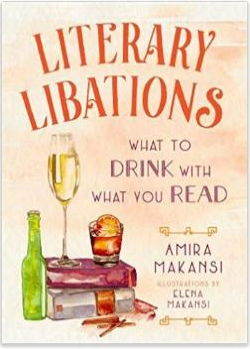
한편, 세이키 섬 동쪽에 자리한 도시에서는 용을 타고 다니는 드래곤라이더가 되기 위해 꼬마 때부터 고달픈 훈련을 참고 견뎌온 소녀가 있다. 테네는 훌륭한 선배 라이더들로부터 탁월한 솜씨를 인정 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라이더 선발 날짜가 다가오자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걱정이 된다. 온 도시 사람들이 '선택의 날'이라 부르는 이 중대한 날 드래곤라이더로 반드시 인정 받아야 정식으로 용의 등에 타고 다닐 수 있다. 사실 세이키 동쪽 도시에서 용을 길들이는 이 위험한 전사를 키우는 이유는 아주 오래 전 갈라진 서쪽 지역과 언제 전쟁이 터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전사가 되고 싶어 열심히 훈련해온 테네는 바로 전날 밤, 최종 합격자가 뽑힐 때까지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는 선발 규정을 어기고 근처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마치 물에서 일어난 것처럼 해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딘가에 걸리고 찢겼는지 옷 상태는 넝마에 가깝고 얼굴은 지쳐서 넋이 나가버린 상태로 뭍에 다다른 남자를 보며 테네는 궁지에 몰린다. 테네가 살고 있는 도시의 규정상, 외부인이 도시 경계 내로 들어오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은 없는지 의사가 진단을 마친 뒤에 섬 안으로 들일 것인지, 쫓아내거나 죽일 것인지 결정한다. 하지만 그 규칙대로 할 경우 테네는 합숙소 침실이 아닌 해변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그럴 경우 드래곤라이더 시험은 꿈도 못 꿀 일이 될 것이다. 결국 고민 끝에, 테네는 헌신적인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이 정체 모를 침입자를 도시 경계 구역에 하룻밤 머물게 한 뒤, 선택의 날이 지나면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다. 테네가 세운 계획에 따라 침입자는 도시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로 알려진 닥터 루스의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배가 어쩌다 섬 동쪽 도시로 떠밀려 온 사람이 아닌, 서쪽 왕국에서 사브란 여왕을 모시는 귀족이며 동쪽 도시의 대표자를 만나 긴히 상의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국경을 넘어온 사절이었다.

서쪽과 동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협상을 맺자는 제안은 결국 파국에 이르고, 두 나라에 전운이 감돈다. 후대가 없는 사브란 여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내야만 하고, 동쪽에서는 테네를 포함한 드래곤 라이더들이 임박한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사만다 셰넌(Samantha Shannon)은 세인트 앤스 칼리지에서 영어와 영문학을 공부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The Bone Season』 시리즈로 「뉴욕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해당 시리즈는 영화, TV 제작 옵션도 판매됐으며 2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려 나갔다. 그 밖에도 『The Mime Order』, 『The Song Rising』 등을 썼다.

NON-FICTION



제목 : LITERARY LIBATIONS
가제 : 애주가와 책벌레를 위한 안내서
저자 : Amira Makansi
출판사: Skyhorse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9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인문

* **"이 책은 호기심 많은 애주가로서 처음 접하고 읽어보고 싶은 책(혹은 다시 읽고 싶은 책)을 찾거나, 독자로서 작가의 문학적인 열정을 공유하다가 목이 마르면 마실 만한 음료를 고를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 어느 쪽이든 나처럼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 『Scrapper』의 저자 매트 벨**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독서 환경이 있다. 전등의 밝기, 의자나 방석의 편안함, 소음의 정도 등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들 중에는 간식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잘 어울리는 술 한 잔을 곁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와인 전문가이자 소설가인 저자는 책과 술이라는 특별한 조합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책 장르별로 가장 어울리는 술은 무엇인지, 그 독특한 정보를 이 책에서 제시한다. 왜 하필 책과 술일까? 책을 읽고 싶으면 그냥 읽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시면 되지 어째서 굳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라고 권할까? 이 조합에 대해, 저자는 책과 술은 둘 다 생각처럼 그리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길을 가다 문득 귀에 들려온 멜로디에 잊고 있던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듯이 책과 술은 우리를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데려다 놓는 신기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특히 후각적인 자극이 함께 할 경우, 그 기억은 훨씬 더 오래, 깊이 남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저자는 술을 마시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모두 실제 눈 앞에 있는 사람이든 책 속의 인물이든 상대와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책을 읽으면 우리는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취중진담'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우리는 평소보다 상대에게 자신을 더 편안하게, 더 많이 드러내고 그 시간은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 책과 술은 우리의 유대감과 공감 능력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낯선 대상도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이 특별한 관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책마다 잘 어울리는 술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러시아 소설을 읽으면서 위스키를?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서 창작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샴페인을?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피하고 가장 찰떡궁합인

책과 술의 짝을 찾기 위해 저자가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200여 건에 이른다. <위대한 게츠비>는 샴페인으로 만드는 칵테일 '프렌치 75'와 함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트라피스트 맥주와 함께 할 때 가장 잘 어울리고 <분노의 포도>는 올드바인 캘리포니아 진판델과, <드라큘라>는 '블러드 메리' 없이는 읽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선하고 재미 있는 저자의 추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개되는 책과 술은 간단한 배경 정보도 함께 제시되어 더 친근하게 읽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컴컴하고 비바람 부는 날: 고전문학, 유럽 에디션
나파 카베르네, 켄터키 버번, 맨해튼: 고전문학, 미국 에디션
반전 있는 이야기와 레몬 트위스트: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자 칵테일 꿈을 꿀까?: 사변 소설, SF
도마뱀 다리, 올빼미 날개: 검객과 마술사를 위한 마법의 약
황홀할 때: 로맨스 팬들을 위한 술
보졸레 누보: 현대 문학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YA 소설을 읽는 청소년들을 위한 음료
심하게 목이 마른 애벌레: 독서하는 어린이를 위한 음료

<저자 소개>

아미라 마칸시(Amira Makansi)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와인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와이너리, 와인 유통사, 음식점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엄마, 여동생과 함께 SF 3부작 『THE SOWING』을 썼다. 해당 시리즈의 1권은 헐리우드 프로덕션 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

제목 : GENIUS WEAPONS
가제 : 영리한 무기
저자 : Louis Del Monte
출판사: Prometheus Books
발행일: 2018년 11월 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공학

*** 무기와 전투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조명하고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책**

군사 무기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미 폭탄을 실어 나르는 드론이 투입되었고 미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에 뒤질세라 '치명적 자동화 무기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떠올리게 하는 로봇은 아직까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자동조종장치를 갖춘 드론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에서는 자율살상무기라는 명칭과 달리 드론이 상대를 죽이는 것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사람들이 내리도록 한정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율무기 의존도가 매우 높다. 러시아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지키는 용도로 자동조종 기능이 장착된 무기를 이미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지휘통제 시스템에 로봇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될 것이며, 해당 장치는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 시스템에서 송출되는 정보를 수신하고 자체적인 공격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명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30년 이상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 개발을 이끌어온 저자는 인공지능 무기의 개발 실태와 위험성, 장점과 윤리적 딜레마를 이 책에서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기계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까? 완전 자동화 무기가 행한 일과 그에 따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프로그래머일까, 기계일까 아니면 그 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한 국가일까? 전쟁이 기술로 승패가 결정되는 현 추세라면 전쟁이 전보다 쉽게 일어나고 결국 인류의 전멸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 인공지능 기술이 '특이점'의 수준에 다다를 경우, 인간이 개발한 무기를 인공지능의 한계를 벗어난 지능이 통제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면서 자율살상무기가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한다.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과연 기술이 더 발전해서 기계가 인간의 직관력과 도덕적인 판단, 인식까지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21세기 전장에서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율조종 무기가 '스마트'한 수준에서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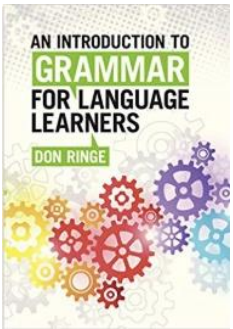
재적' 수준까지 진화한 과정을 상세히 추적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과 함께 향후 등장할 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전망한 생생한 시나리오를 여러 편 제시하며 마치 영화나 소설을 보듯 흡입력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도 가득하다. 더불어 저자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무기가 가져올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군비경쟁에서 주의해야 할 점, 역사적인 선례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꼼꼼하게 짚어준다.

<목차>

머리말
1부. 1세대: 스마트 무기
1장. 초창기
2장. 다정한 로봇
3장. 치명적인 로봇
4장. 새로운 현실
2부. 2세대: 천재적인 무기
5장. 천재적인 무기의 개발
6장. 자율살상무기의 통제
7장. 윤리적 딜레마
3부. 전쟁의 끝, 혹은 인류애의 종말
8장. 자동조종장치와의 전쟁
9장. 누가 적인가
10장. 인간성 vs. 기계
맺음말. 자동화 무기와 천재적인 무기 배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부록 I-III

<저자 소개>

루이스 델 몬테(Louis Del Monte)는 Del Monte and Associates, Inc.의 CEO를 맡고 있으며 물리학자, 미래학자, 발명가로 활동해 왔다. 30년 이상 IBM과 허니웰(Honeywell)에서 마이크로 전자공학과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다.



제목: AN INTRODUCTION TO GRAMMAR FOR LANGUAGE LEARNERS
가제: 모든 언어학습에 필요한 문법 입문
저자: Don Ringe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8월 23일
분량: 242 페이지
장르: 학습/외국어

* "언어와 언어 학습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훌륭한 책. 진짜 언어의 특이한 점들과 어려운 부분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상식적으로 설명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고전학, 역사언어학 교수 스티븐 콜빈(Stephen Colvin)

우리나라 아이들 대다수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만 성인이 되면 길에서 외국인만 봐도 피하거나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를 쓸 일이 생기면 또 다시 학원이나 과외를 알아본다. 중국어, 일본어 등 업무상 필요한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다. 목적이 일이든 여행이든, 들이는 돈과 시간만큼 외국어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아 큰 좌절감만 안게 된다. 왜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는 일이 힘들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어릴 때 '스펀지처럼' 언어를 빨아들이는 시기가 지나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꾸역꾸역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자인 저자는 모든 인간이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일곱 살 전후의 시기에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언어에 노출되더라도 각 언어의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완벽하게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문장을 만들려는 노력 없이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중요한 시기가 지난 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언어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언어의 구조, 즉 문법에 통달하면 낯선 언어도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고, 오래 전부터 간파한 유럽에서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문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언어 습득의 과정을 대신해줄 언어 구조, 즉 문법을 어렵게만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저자는 영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몇 가지 언어의 사례를 들어 다양한 언어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을 짚어준다. 바로 이 공통적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면 여러 언어를 좀 더 쉽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익힐 수 있다. 저자는 현대 언어학에서 등장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론은 배제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어 자체에 접근한다. 저자는 수학을 유난히 싫어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문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처음에는 일단 그 두려움을 누르고 억지로라도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고 엄청난 지능을 요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난

뒤에 꾸준한 연습이 동반되면 충분한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문법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배운 문법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실전에 사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갖추어지면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 듣는 언어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외계어'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핵심 원리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각 언어의 구조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연습문제와 예시를 풍성하게 제시한다.

문법을 추상적인 설명을 최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학습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언어 자체의 기본 구성을 일깨워서 그것을 외국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특별한 언어 학습서다.

<목차>

이 책 활용법
1. 머리말
2. 문장, 절, 문장과 절에 사용되는 동사
3. 주어
4. 명사구, 숫자
5. 대명사, 주어-동사 일치
6. 직접 목적어, 사례
7. 이중 목적어 동사
8. 동사의 "연결", 형용사
9. 인칭대명사
10. 재귀용법, 수동태
11. 소유격
12. 성별, 일치, 명사 분류
(이하 생략, 총 3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돈 링게(Don Ringe)는 30년 이상 대학원에서 고대 언어, 중세 언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쳤다. 2012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에이브럼스 교수상을 수상했다. 『From Proto-Into-European to Proto-Germanic』, 『Historical Linguistics』 등 언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SHORT LIFE IN A STRANGE WORLD
가제 : 낯선 세상에서 살아본 짧은 생
(부제 : 브뤼헬의 공간으로 떠난 여행)
저자 : Toby Ferris
출판사: 4th Estate / HarperCollins USA
발행일: 2019년
분량 : -
장르 : 에세이/전기/예술/여행

* "저자의 멋진 글은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극히 독창적이다." - 저술가 올리비아 랭(Olivia Laing)
* "피테르 브뤼헬의 전기이자 아버지를 회상하는 한 아들의 감동적인 회고록이고, 눈부신 예술비평인 동시에 독특한 여행기이자 자서전이다. 특이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특이한 이 책은 많은 독자들을 이상한 세상과 짧은 생애의 이야기로 데려갈 것이다." - 저술가 로버트 맥팔레인(Robert Macfarlane)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도 아버지가 되는 큰 변화를 겪자, 저자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닫시 마흔 마흔두 살이던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북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 피테르 브뤼헬의 작품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모든 작품을 직접 두 눈으로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 책에는 유럽 주요 도시와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까지 넘나든 여정에서 저자가 회상한 과거의 기억과 각 작품에 관한 주관적인 감상, 그리고 날카로운 비평가의 눈으로 면밀히 분석한 내용, 그림의 어느 한 부분이 불러일으킨 삶과 세상에 관한 뜻밖의 통찰이 정리되어 있다. 무작정 시작한 '브뤼헬 프로젝트'는 위대한 예술가의 일생과 작품에 관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탐구로 확대되고 나아가 작품마다 깔린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저자는 가르치려 하거나 중대한 교훈을 심어주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담담한 글로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독자가 그 여정에 따라오도록 이끈다. 가령 브뤼헬의 대표작 중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은 브뤼셀에서 약속 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 때우려고 들른 미술관에서 저자가 처음으로 본 브뤼헬의 작품이었다. 농부가 깡마른 소를 끌며 밭을 메고 그 아래 절벽 바로 옆 좁은 땅에서 양치기가 양을 모는 풍경은 그 뒤로 넓게 펼쳐진 바다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저자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젊은 시절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청춘 특유의 무모한 혈기로 스턴트 묘기를 시도하다 추락한 친구를 떠올리고,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아버지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준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린다. 개인적인 회상은 이카루스를 그 지경에 몰고 간 신화 속 이야기에 관한 고찰과 이 작품에서 엿보이는 위작의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저자가 마주하는 작품마다 방대한 지식과 역사가 내포되어 있지만 읽는 사람이

압도되거나 이해 못할 만큼 까다롭지 않게 찬찬히 설명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는 글 솜씨와 담백하면서도 이 엄청난 여행을 왜 시작했는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저자의 열정은 대단한 전염성이 있다. 40대 초반까지 살면서 그가 직접 보거나 전쟁에 참전한 부친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죽음, 그리고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은 뒤에 이루어진 변화, 수백 년 전에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살던 한 예술가가 남긴 예술작품이 현재를 사는 우리와 얼마나 많은 공통분모가 있는지 느끼고 낯선 도시, 낯선 미술관에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느끼는 저자의 이야기는 마치 그와 함께 여행하고 감상을 나누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목차>

1. 비행
2. 인구조사
3. 화재
4. 대학살
5. 회색
6. 파리
7. 추위
8. 곰
9. 기법
10. 교수대
11. 특이성
12. 군중
13. 집
맺음말

<저자 소개>

토비 페리스(Toby Ferris)는 에세이를 시리즈로 게시하는 웹사이트 'ANATOMY OF NORBITON'을 운영해 왔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작품을 렌즈로 삼아 시골 생활과 삶의 실패에 관한 글을 주로 쓰고 있다.

제목 : MARSHALL CAVENDISH - BUSINESS TITLES

가제 : 마케팅 지침서 4종 시리즈

저자 : Bob Etherington

출판사: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Asia) Pte Ltd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영업

1. 겁쟁이들을 위한 판촉전화 기술 (Cold Calling for Chickens)

치과, 높은 곳, 앞에 나가서 하는 발표, 뱀, 그리고 판촉 전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난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사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가 성립되도록 이끄는 과정을 몹시 두려워한다. 상대가 벌컥 화부터 낼 수도 있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차라리 양반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이런 것까지 하냐'는 식의 비웃음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영업 종사자들이 고개를 내젓는 판촉 전화는 요령만 알면 그 어떤 전략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어떤 시장에서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전체 판매량의 85 퍼센트가 바로 판촉전화의 요령을 아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책에서 그 비결을 소개한다. 소비자와 눈을 마주보고 상품을 설명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업에서 판촉전화는 피할 수 없는 필수요소인 만큼 상세히 배워둘 필요가 있다. 저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효과를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생전 처음 통화하는 사람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의 추정과 달리 아무하고나 수다를 잘 떠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자신 있게 영업할 수 있는 팁을 배울 수 있다.

2. 초보자를 위한 협상 기술(Negotiating Skills for Virgins)

재래시장에서 엄마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사면서 '좀 깎아줘요!'라고 흥정하는 모습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지만, 떼 쓰는 것 같은 흥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양쪽 다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되려 놀라게 된다. 그러나 시장

에서 물건 값 몇 푼 깎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직접 영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구입하려고 할 때 원하는 가격, 조건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저자는 몸짓과 목소리 톤 등 생각지도 못한 신체 언어로 협상력을 높이고 상대와 소모적인 기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요령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것보다 기분 좋게 수다 떨듯이 상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절대 밝히지 말아야 할 정보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습관적인 표현 등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다.

3. 긴장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표 기술(Presentation Skills for Quivering Wre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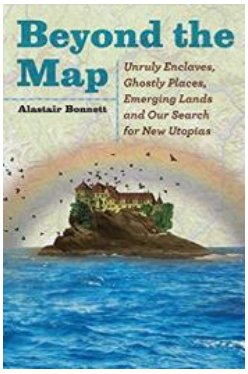
다양한 영업 방식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잠재 고객들 앞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들일 수도 있는 참석자들에게 친근하게 상품과 회사를 설명하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설득하려면 우선 발표자가 긴장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발표자가 떨면서 준비해온 자료를 줄줄 읽는 동안 참석자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한 시간만 지나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 이런 불상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발표할 때 청중을 집중시키는 힘은 90 퍼센트가 몸짓과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중요한 사실과 함께, 발표 내용보다 전달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해서 눈앞이 하얘지는 사람들이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 슬라이드 구성 시 주의해야 할 점 등 저자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섞어서 현실적인 팁을 풍성하게 알려준다.

4. 아마추어를 위한 영업 기술(Selling Skills for Complete Amateurs)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영업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적으로 영업 기술을 익힐 기회 없이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 결과도 좋지 않고 일하는 당사자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판매의 기본적인 원칙, 소비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같은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이 틀어질 수 있다. 저자는 10년간 실제로 초보 영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영업 전략을 알려준다. 영업 시작과 종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 소개>

밥 에서링턴(Bob Etherington)은 40년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영업 전문가로 활동했다. 런던 랭크 제록스(Rank Xrox)에서 근무하다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호텔로 스카우트되어 그곳에서 일한 뒤 금융업계에서도 일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까지 로이터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비즈니스 기술 교육 업체 SpokenWord Ltd.를 설립했다.



제목 : BEYOND THE MAP
가제 : 지도에 없는 마을
저자 : Alastair Bonnett
출판사: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지리/인문

*** 영국, 독일, 대만,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저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변동성이 가장 심한 장소에서 느낀 흥미로움과 드라마, 사랑, 혐오감을 열정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한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 -「뉴욕타임스 북리뷰」**

스마트 폰만 켜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상, 구글 지도로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상 모든 장소가 지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에 없던 섬이 생겨나는가 하면 원래 있던 섬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독특한 가치관과 특별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뭉친 사람들이 부락을 이룬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도 곳곳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도에 나온, 각국의 영역을 구분한 선명한 경계선과 나라마다 딱딱 나뉜 지역 구분은 점점 더 그 의미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학 교수인 저자는 일반적인 '장소'의 정의를 훌쩍 뛰어 넘은 40여 곳의 흥미로운 곳들을 찾아 이 특별한 장소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 미래를 들려준다. 공식적인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장소들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사연들이 담겨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혹은 '공동체'의 경계가 날마다 바뀌는 곳들은 세계 곳곳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분산되어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저자는 언제 어디서 생겨나서 어떻게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곳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지리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대상에는 '쓰레기 도시'로도 알려진 카이로의 악명 높은 마을 모카탐 빌리지처럼 실제 땅 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도 있지만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처럼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공동체도 있다. 또 영국 남부에 분명 존재했지만 지금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잃어버린 땅이라 불리는 도거랜드와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 보트니아 만에 새롭게 솟아난 섬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국가의 탄생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등 정치적인 갈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생겨난 새로운 장소, 그리고 구글 지도나 위성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곳에 꽁꽁 숨어 있는 신기한 장소들도 포괄된다.

표면적으로는 저자가 소개하는 40여 곳의 장소들이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가 이토록 보편화된 시대에도 세상이 정한 지도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거부하는 장소들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장소들은 인간이 자연과 스스로 만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다. 저자는 '장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윤리적인 폭력, 살 곳을 잃고 평생을 쫓겨 다니는 난민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분열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조명한다. 땅의 소유, 집과 국가의 의미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제멋대로 생긴 섬들
  - 망키에르
  - 미국령 군소제도, 해상 초소형국가들
  - 난사군도 등(이하 생략)
2. 집단 거주지, 불확실한 국가들
  - 라딘 밸리
  - 본다이 해변의 이러브(Eruv)
  - 페르가나 계곡 등(이하 생략)
3. 유토피아
  - 이슬람국가와 레반트
  - 사이버토피아
  - 신 유목민 등(이하 생략)
4. 으스스한 곳들
  - 신주쿠 역의 유령 터널
  - 스카이워크
  - 보이스 빌리지 등(이하 생략)
5. 숨겨진 장소
  - 카이로 쓰레기 도시
  - 거리를 벗어나서: 와나타뮬라의 숨은 언덕과 빈민가 등(이하 생략)
맺음말

<저자 소개>

알래스테어 보넷(Alastair Bonnett)은 뉴캐슬 대학교 사회지리학 교수로 『What is Geography?』, 『How to Argue』, 『Left in the Past』 등 여러 편의 저서를 썼다. 2014년에 발표한 『Off the Map』은 10개 언어로 번역됐다.